



“여행자·소형 상점도 쉽고 정확하게 ‘가짜 돈’ 식별”

“두 장 중 하나는 위조지폐(위폐)입니다. 구분할 수 있었어요?”

지난 4일 서울 구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김인규 아이엔에이치 대표는 100달러 지폐 두 장을 붙숙 내밀었다. 고민 끝에 하나를 골랐지만 틀렸다. 그동안 ‘위폐는 조악하겠거니’ 생각했지만 구분이 쉽지 않았다. 문질러보고 불빛에 비춰보기도 했지만 별 차이가 없었다. 김 대표는 “갈수록 위폐의 질이 좋아져 육안이나 촉각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지난 5월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기(사진)를 내놓은 이유다.

◆‘작지만 강한’ 위폐 감별기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기는 지폐에 위조방지 장치로 쓰이는 적외선·자외선·자성 등의 특수인쇄를 카메라와 센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미국 달러화, 중국 위안화 외에도 각국의 웬만한 화폐를 검사할 수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지폐를 적외선 모드로 설정한 뒤 지폐에 비추면 군데군데 들어가는 무늬가 화면에 뜬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에 있는 이미지와 똑같은 ‘진짜 돈’이다. 김 대표는 “적외선 등 세 종류의 특수인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제품은 우리 제품이 유일하다”며 “크기는 작지만 고가 장비 못지않게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육안·촉각으로 위폐 구분 한계 휴대 가능하고 성능 뛰어난 중국·독일서 잇단 ‘러브콜’

다. 중국산이 대부분인 기존 휴대용 제품은 한 종류 특수인쇄만 감지할 수 있다.

아이엔에이치 제품은 ‘왜 위폐인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는 게 특징이다. 은행에서 쓰는 고가형 제품은 대부분 돈을 세는 개수기 형태다.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검사할 수 있지만 위폐 여부만 보여줬다. 낡은 지폐를 위폐로 잘못 파악하는 일도 있었다. 아이엔에이치 제품은 값이 저렴해 해외 여행자는 물론 소규모 환전소, 일반 상



김인규 아이엔에이치 대표가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기의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현동 기자

점 등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해외에서 인기몰이

김 대표는 한 위폐 감별기 회사에서 6년 정도 개발자로 일했다. 연구개발(R&D)을 하면서 달러화, 위안화는 물론 브라질 헤알화, 칠레 페소화 등 전 세계 대부분의 화폐를 직접 보고 분석했다. 그러다 일반인과 소형 점포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용 위폐 감별기 시장의 잠재성에 주목했다. 회사를 나와 2013년 초 회사를 차렸다.

그가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위폐 범죄가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위폐로 ‘한탕’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 예전에는 소수의 전문 위폐 제조범에 의한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고가의 설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프린터와 복사기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위폐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고액권이 속속 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년여 R&D 끝에 제품을 내놨다. 출시한 지 약 6개월 만에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발명전시회에서 은상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독일, 중국 업체와 수출을 협의 중이다. 국내에서도 한국조폐공사 등에 제품을 공급했다.

최근 후속 제품 개발에도 나섰다. 김 대표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제품 가격을 낮춰줄 수 없는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가격이 더 저렴한 보급형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네오코-음이온 젯분소독기 (032)572-5432 △나노소프트-스마트체중계 (042)633-1517 △아이엔에이치-휴대용 위조지폐 감별기 (02)853-7497 △엑스-충전용 무선인두기 (051)302-1006



정재하 대표(뒤쪽)가 정비 중인 화학작용제 탐지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에이치케이 제품

“독성 산업화학물까지 탐지” 에이치케이씨, CBMS 개발

(화학 경용 자동탐지기)

방산업체 탐방

軍부대 1~2년내 실전 배치

“화학방 정찰차에서 사용 중인 화학자 탐지기는 화학작용제만 탐지할 수 있습니다. 화학 경용 자동 탐지기(CBMS)는 화학작용제는 물론 생물학작용제, 독성 산업화학물질까지 모두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정재하 에이치케이씨(HKC) 대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아래 우리 연구진이 참여해 최근 개발한 CBMS가 1~2년 내 군 부대에 배치되면 군의 화학 및 생물학전 대비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CBMS는 군의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다. 에이치케이씨는 제품 양산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두산DST가 생산하는 소형 화학방 정찰차에 CBMS를 핵심 장비로 공급할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 테러 참사 이후 신경·수포·혈액·질식작용제 등 화학작용제와 콜레라·탄저·페스트·천연두 등 생물학작용제를 사용하는 신종 생화학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화학전 대비 태세가 요구되는 이유다.

에이치케이씨는 1994년 독성 화학가스가 살포되던 자동으로

탐지하고 경보를 전파하는 화학자 동경보기(KM8K2)를 개발해 중대급 부대에 공급했다. 2003년에는 공기 중에 극미량 퍼져 있는 각종 독성 화학작용제를 탐지하고 제독됐는지를 확인해주는 화학작용제탐지장비(K-CAM2)도 양산해 실전배치를 마쳤다. 핵과 방사능의 낙진 등으로 사람이나 장비 등에 오염된 방사선량을 탐지하는 방사능측정기(PDR-1K)도 2002년 개발해 군에 납품했다.

에이치케이씨는 2013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소형 이온탐지센서 기술을 활용해 화학작용제와 독성 산업물질을 동시에 탐지하고 경보까지 할 수 있는 화학탐지경보 장비 개발 업체로 선정됐다.

에이치케이씨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신문사는 제품 양산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두산DST가 생산하는 소형 화학방 정찰차에 CBMS를 핵심 장비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탐지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화학방, 생물학, 방사능뿐만 아니라 폭발물 탐지 등 보안탐지 장비분야에서 세계 최우수 업체로 발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남성 통풍환자, 여성의 10배

통풍 진료비는 年 10.8% ↑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통풍’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남성 환자는 여성의 10배가 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통풍 진료 인원은 2010년 22만 2864명에서 지난해 30만 9356명으로 연평균 8.5%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395억원에서 594억원으로 해마다 10.8%씩 늘었다. 통풍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취약했다. 지난해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남성 환자는 28만 2998명으로 여성(2만 6358명)보다 10.7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진료 인원이 인구 10만명당 1349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1318명), 50대(1030명), 40대(7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통풍 환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지만 30대의 경우 남성이 여성의 22.2배에 달하는 등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여성호르몬이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폐경 전에 통풍 진단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풍은 몸 안에 요산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중국자본 대응방안 세미나 중소기업청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중국자본의 한국투자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용배 페이퍼 대표,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 이창영 중국금융연구원장, 변용재 법무법인 율촌 중국법인장, 홍원호 KTB네트워크 중국대표, 박용순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장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중기청, 주관기관 모집

중소기업청이 2016년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주관기관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D) 분야에 시범 도입되는 바

우체 방식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주관기관을 먼저 선정해 주관기관에 대한 정보(연구인력 및 R&D 실적)를 중소기업에 미리 제공할 예정이다.

중진공·세라믹기술원 소재 기술 사업화 설명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소재·부품 기술 사업화 및 정책자금 지원 설명회’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설명회는 오는 11일 경기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린다. 세라믹 기술 사업화 및 정책자금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 100여명을 모집한다. 설명회는 세라믹 분야 우수기술 소개,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안내 등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각 세션이 끝난 뒤에는 기술 사업화, 정책자금 등에 대한 1대 1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코골이 때문에?...

아직도 코골이 때문에 밤새 고통받고 계신가요?
취침중에 무호흡도 걱정되시나요?
저런! 아직도 「스노-스토퍼」를 모르셨군요?
「스노-스토퍼!」 코골이 고통을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소비자 가격 ₩135,000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는 「스노-스토퍼」
HVOX Snore Stopper는 뿌리거나 코에 부착할 필요 없이 시계처럼 손목에 착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이 들기 시작하면 몸의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목 부위 근육이 너무 많이 이완될 경우 코골이가 시작됩니다. Snore Stopper는 코골이 소리(55dB : 1m 떨어져 있는 에어컨 소리 정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우리 몸의 근육이 너무 이완되지 않도록 5초 동안 손목 피부에 미세한 진동의 주파수 자극을 발생시켜 코골이가 멈추도록 합니다.

스노-스토퍼 체험 장소 : 본사(4호선 숙대입구역) 080-778-4741
아이파크몰(1, 4호선 용산역) 080-704-1004 테크노마트(2호선 강남역) 080-552-5332
www.kmal25.com 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상품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사 HVOX BIOTEK INC. 판매처 (주)인센티브